

## 교회소식

### ◆ 광고

1. 오늘 오후 예배는 제5남, 6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2.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제5남, 6여전도회 연합찬양대입니다. (연습 2시, 소망관)
3. 2014년 대전신일교회 바자회가 요번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금요선교기도회 ①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8~10시 ② 장소 : 고신총회선교센터 예배당
5. 오늘 2부 예배후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적극 참여 바랍니다.

### ※ 교인동정

- ① 생일 축하합니다 : 성원경, 이지영, 김정숙, 정옥근, 박관용, 전양순, 신동명  
 ② 식사대접 : 김진온(김남주)집사 장모님의 장례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③ 이 사 : • 송명남 집사 - 전민동 세종아파트 105동 106호  
 • 박혜정 집사 - 중리동 240-11번지 이원주택 203호  
 • 윤호식 집사 - 세종시 도당동 도렘마을3단지 301동 403호  
 • 이인호 집사 - 중촌동 올리브힐아파트 101동 804호  
 ④ 입 원 : • 김정희 권사 -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 본관 520호실  
 • 김금분 전도사 - 충대병원 관절센터 2623호

### ※ 교계소식

고신총회 - 일시 : 9월23일(화)~26일(금) - 장소 : 천안고려신학대학원  
 담임목사님과 강일창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3남전도회	여 11, 12목장	제4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 9월 행사

- 7일 : 신일비전헌신예배
- 14일 : 각 기관 월례회, 교단창립기념주일
- 21일 : 제5남, 6여전도회 헌신예배
- 22~26일 : 총회주간
- 28일 : 정기당회

◆ 9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9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익, 이진석, 객복님, 이정자

##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 다같이  
 새 79장(구 40장)  
 새 303장(구 40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기 도 ..... 1부/김명권 장로  
 2부/원용국 장로

성경말씀 ..... 인도자

누가복음 16:19~31(신 P123)

찬 양 .....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결코 잊지 말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새 523장(구 262장) ... 다같이

헌 금 ..... 다같이

감사와 축복 .....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 담임목사

광 고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강일창 장로  
 2부 / 양문주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 주일오후예배

제5남·6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박 진 우 회장  
 설교 최사무엘 목사

예배선언 .....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 박상임 회장

성경말씀 ..... 인도자

요엘 2:12~20(구 P1272)

찬 양..... 제5남·6여전도회

말씀선포 ..... 설교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찬 양 ... 새 273장(구 331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이인호 회계

광 고 ..... 인도자

축 도 ..... 설교자

✚ 다음주 기도 / 이진석 집사

##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묵 도 ..... 다같이

찬 송 ... 새 268장(구 202장) ... 다같이

기 도 ..... 강경숙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사무엘하 12:15~25(구 P480)

말씀선포 ..... 설교자

죄에서 다시 일어나라

목장찬양 ..... 여 11, 12 목장

축 도 .....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13, 14 목장

✚ 다음주 기도 / 신윤경 집사

Since. 1978

No 38. 2014. 9. 21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관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옥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 초 대 합 니 다

###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턴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랑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은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 향기로운예물

### ✦ 십일조헌금

강보라, 강혜성(김성원), 김금분, 김재희, 김종경, 김춘복, 김희경, 남영순, 노시래(구남령), 박순국(조수정), 박유연,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박재미, 백춘현(엄임순), 손승희, 안주모(조양순), 권덕목(김채욱), 윤선욱(엄순자), 이문희, 이선환, 이성은(정), 이성자, 이승민(엄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윤희(최길자), 이진석(윤혜진), 이혜숙, 임응천(정분화), 정기훈(최연욱), 정유진, 최계분, 최숙자, 최영준(한은정), 무영 2

###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금분, 김영권(정영주), 김재홍(한영자),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김춘복, 노시래(구남령), 박근용(최윤자), 박석문(정민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박혜진, 백춘현(엄임순), 소재익(김미화), 손승희, 신동형(강경숙),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경희), 우호선(김순자), 원용국(김복금), 윤선욱(김진혜), 이승민(엄서운), 이은정, 이인호(정지혜), 전금남, 정기훈(최연욱), 정욱근(이경미), 정유진, 최계분, 최사무엘(서남지), 함돈수(곽정자), 무영

### ✦ 선교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춘자, 김금분, 김영필(심남희), 김재희, 김종남, 노시래(구남령), 박성운(이혜운),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혜진, 백춘현(엄임순), 안주모(조양순), 이승민(엄서운), 임응천(정분화), 정욱근(이경미), 최숙자

### ✦ 일천제헌금

강혜성, 김건국(김성숙),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박유연, 안스디자민, 안영원(영민/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하), 장은숙(소연/진형/진성), 정욱근(이경미), 무영

### ✦ 비전헌금

김영권(정영주), 김진순(윤리미), 김춘복, 노시래(구남령), 박상임, 박은정, 백춘현(엄임순), 손승희, 우호선(김순자), 이목영(김영자)

### ✦ 목적헌금

김종남

### ✦ 장학헌금

정욱근(이경미)

## 목장현황

2014. 9. 8~9. 14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4	20,00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4	10,000	4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4	16,000	10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2	5,000	50	교 회
남2초원	3 박근용	교 회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4	15,000	13	교 회
	4 김영권	교 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1,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44	교 회	여5초원	9 구남령	교 회	3	11,000	15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3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1	5,000	1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1	5,00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교 회
	8 박순국	교 회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1	10,000	6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5,000	3	교 회	여7초원	13 정욱자	교 회	2	10,000	17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17,000	3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영자	교 회	3	13,000	70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교 회
	2 김영숙	교 회	3	15,000	55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30	교 회	여9초원	17 한은정	교 회	4	5,000	33	교 회
	4 정채순	교 회	3	9,000	10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5	10,000	25	교 회

## 금주의 말씀

## 결코 잊지 말자

누 가 복음 16:19-31

사람에게 기억력은 중요 합니다. 기억력 상실은 인격의 상실이요 존재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본주의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문앞에 버려진 가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였고 외면해 왔습니다. 부자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자식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기가 4개월을 지배하고, 토양을 비옥케 하며 태양의 뜨고 지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와 이슬과 공기와 온도를 맘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착각에 빠져 산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중심의 어리석은 생각들은 인류역사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뇌리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와 지적인 유산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찰나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지도 죽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라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러운, 가난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비로하고 신앙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 2. 결코 이웃을 잊지 말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잊고 사는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19-21절을 보면, 여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뽕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았는지,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찌 되었던 그는 부자였고 그것을 누리는데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 역시,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그 밖에 다른 무슨 죄를 지었던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후 그 영혼이 불못 속에서 고통과 고민을 받으며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가지 나사로에게 묻는 방울만 짙어 허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물론 다른 죄도 많이 지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집 대문 안에서 온 몸매 한테를 활으며 먹다 버린 쓰레기나 뒤져 먹고 살던 이 거저에 대해서 한 번도 공물을 베풀지 않았습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직에 죄명이 없는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있으니 무관심의 죄라고 하겠습니다.

### 3. 결코 천국과 지옥을 잊지 말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핵심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죽으면 즉시 가는 곳입니다. 본문 22절에 "이제 그 가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반들려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이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국에 간 것이 바로 천국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과 지옥 생활에서도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허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부자는 지옥에서 비참한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천국과 지옥은 무의식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과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리는 살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는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생활에 대해서 뚜렷한 대조로 대조를 이루는데, 천국은 위로의 자리요 지옥은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넷째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 할 수 없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분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간청한다고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 4. 결코 영혼 구원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시로는 다행히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보니기가 막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을 생각하니 딱히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시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부모 자식 친척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부자가 자기의 부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호화호식하며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믿으라고 말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 "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자도 영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산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옥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모로, 권사님, 집사님, 당신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내 아들이요, 내 처제인데 제발 나 있는 고통스러운 지옥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낸 나시로를입니다. 전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아찌 말에 하나님 구원할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십시오.